

◆1교시: 근대화와 자본주의적 생산

▲정치적생산

용가리라는 영화가 만들어진게, 몇 년도죠 그게? 90년대 한 중반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에 인제 김영삼 정부가 소위 영화산업에 중요성,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얻는 소득이라고 하는게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쪽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스크린쿼터 이걸 하면서 한국 영화계에 지원을 많이 해주었잖아요. 음... 이러한 지원과 사람들의 영화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쭉 겹집되어지면서 이 영화 그 자체가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을 하는 셈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비물질적인 상품 - 영화가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비물질적인 생산물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이게 단지 어떤 우연에 산물이나, 혹은 또 특정 정부의 정책의 산물이나, 아니면 좀 더 커다란 근본적 조건들 혹은 원인들을 깔고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변화, 생산 그 자체의 우리는 지금 이행이라고 불렀는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난 세기에 역사 전체의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삶의 근원적 욕구하고 있다가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biopolitical이죠. 우리가 맨 처음부터 강조해왔던... 생산이라고 하는게... politic하고 생산하고는 안 맞죠. 이것은 economic이니까 경제 쪽이고, 정치 쪽이니까. 모순 어법적인 그런 거잖아요? 정치적생산. 생산 앞에는 경제적이 보통 붙는데, 정치적생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모순어법으로 느껴지는 이 현상들이 어떻게 해서 인제 생산에 헤게모니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가하는 문제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생산이라는 문제

그래서 그 위에 강의안에 써 놓 것들처럼 오늘은 산업 생산이라는 것과 삶정치적생산... 또 물질적 노동하고 비물질적 노동... 물질 노동, 비물질 노동... 요 두 개의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생산이라는 문제 - 생산이라는 개념이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맑스의 경우에는 사회적 삶의 생산과 재생산 - 이것을 역사의 근본적인 일종의 매트릭스로 파악을 한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바로 삶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역사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또, 인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어쩌면 인간이 생산을 한다라는 말 만큼이나 인간은 생산과정의 결과물이자 효과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인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생산물이라고도 말 할 수 있겠죠. 나날이 만약에 나날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활동들을 빼버린다면, 제거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형상으로 이 자리에서 이러한 형식의 삶관계랄까요? 이것을 맺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겠죠. 책을 갖다가 놓고 있고, 필기구를 적고 귀로서 뭔가를 듣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관계양식들은 원시인들의 경우에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이게 뭐하는 짓이지? 원시인들 직접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본다면, 뭘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동작들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기도 하고, 슬슬 흔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어떤 삶의 행위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시간 속에서 진행된 수많은 생산활동들의 일종의 총괄로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두뇌, 신경계통, 그런 걸 발화할 수 있는 어떤 구강구조들 - 이런걸 갖게 돼있죠? 맑스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 - 이것은 생산적인 역사적인

실천의 산물인 것이지, 처음부터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져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일부의 인제 사람들은 아는데, 소도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면은 반응을 하고, 심지어 식물도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면은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막 신진대사가 활발해 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인제 모차르트의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냥 다른 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겠고, 인간이 이해하는 모차르트의 음악하고 소나 나무나 아니면 식물이 모차르트 음악에 반응하는 내용은 분명히 다를꺼란 말이죠. 그니까 특정한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 이 자체가 인간들이 끊임없는 생산과 재생산 과정의 산물이다. 그래서 지금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맑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시 했는데....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것(생산)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컨대 보드리야르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생산 개념에 입각한 역사가관이 일종의 생산의 거울인데, 이걸 갖다 깨고 나서야 우리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이런 식의 생각을 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생산과 분배, 유통, 소비

그래서 이제 보드리야르 같은 사람의 대안은 ‘소비문제’ -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런 식의 대안 제시가 나왔었죠. 우린 뭐 이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어쨌건 우리는 그때 정리하기를 이 소비, 혹은 여기에 어떤 분배라거나 혹은 유통이라고 하는 걸 넣는다 치더라도... 이 생산과 분배, 유통,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이 생산의 공간에 계기들이다 - 이렇게 말을 했죠. 생산이라고 하는 - 이 전체가 다 생산이고, 생산의 소(小) - 생산이라고 하는 협의의 생산이라는 계기에 있고, 여기에 인제 유통이라는 계기가 있고 군대가 있고 소비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생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해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 혹은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생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도(간간히 하기는 했지만) 주로 주권이라고 하는 권력, 권력형성 과정(영화 속에서도 얘기했지만). 주권의 형성 과정을 다루었는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산이라고 계기와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되어왔다 - 이거는 맑스의 사유에서는 거의 경제적인 토대와 상부구조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해되어 왔던 거죠.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엥겔스는 상부구조의 토대에 대한 역규정이라는 방향도 삽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해 왔던 것인데... 우리는 주권과 생산, 이계(생산) 인제 경제의 토대, 아마 정통적 수를 빈다면 말이죠. 이계(주권) 여기(상부구조)에 해당될 것인가... 물론 아무런 식별 없이 두 개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근데 네그리와 하트의 경우에는 바로 이 주권의 이행에 비밀 - 그거를 생산이라고 하는 데서 찾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주권 그 자체도 당연히 영역 속에 삽입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포스트모던적인 어떤 경향들 하고는 차이가 난다, 포스트모던적인 경향하고는 확실히 다른 사유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 ▲근대화(modernization)

지금 거기 두 번째 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탈근대성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하고 포스트모던하고는 가를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던을 주의화하는거고, 이데올로기화, 이념화하는 것이고... 포스트모던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실체에 대한 역사적 개념이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일단 구분하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

리가 포스트모던으로 나가기 전에 근대화(modernization)라고 하는 것을 먼저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근대화를 2와 3에서 하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연관성에서, capitalism과 연관성에서 봤고, 그 다음에 끝은 그... 민족국가(national state)와의 관계 속에서 봤습니다, 근대성이 나타내는 거를...

근데 근대화는 다양한 방면에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몽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근대성이 부정되기도 하고,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의 관계 망 속에서 거시적인 것의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도 하고... 다양한 방법의 접근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생산개념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제일 핵심적인 자본주의화 - 자본의 헤게모니의 등장이 근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본관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토지 - 토지와 인간의 관계 이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자본주의 이전에는 토지와 인간이 유착된 관계였었죠. 이게 인제 서로 이렇게 두 개가 합체화 되어있는 관계. 그래서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반인반마의 관계죠. 그래서 토지가 반마라고 치면은 인간이 반이 인간이 그런 관계. 켄타우로스는 인간이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을 멀리서 봤을 때는 반이 말이고 반이 인간이잖아요? 거기서 인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켄타우로스의 형상하고 닮아있다고 볼 수도 있죠. 토지 위에서 인간이 일어났는데, 그 두 개가 합체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관계가 일단 깨지는 거죠. 깨져서... 정치경제학적인 용어로 다시 해부해 들어가면 - 토지가 이 당시(자본주의 이전)에는 생산의 수단이고 농민이 생산자로서 작용을 했는데, 이것의 연결고리가 깨진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 인제 직접 생산자가 도구의 소유자로서 나타나는 제 관계의 해체 - 이젠 뭐 마찬가지로 얘기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생산자가 생산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풍부한 먹을 것을 갖고 있다면, 입을 것 먹을 것 필수품들을 갖고 있다면 자기의 몸을 파는 행위는 잘 하지 않겠죠. 그러기 때문에 생산자와 이 생산물의 관계를 또한 끊어내야 하는... 생산물을 많이 갖고 있는 생산자. 이 관계(생산수단-생산자)를 끊음과 동시에 이 관계(생산자-생산물)를 끊어 놔야 - 즉, 생산물이 생산자 수중에 막 창고에 가득히 쌓여있지 못하게 해야, 곡간을 비워 놔야, 다르게 표현하면 생산자를 가난하게 만들어 놔야 자본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과정 다 상당히 폭력적인 과정으로 이 관계를 끊어지게 된다는 거. 이게 원시적 축적론의 기본적인 논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인제 해체되면서 노동자간의 관계, 생산자간의 관계 - 생산자들이 인제 사실상 생산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 생산수단 전체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공동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또 다른 생산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생산자 a고 생산자 b c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두 개라거나 공동체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인간들끼리만 맺는게 아니고,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자체도 공유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고, 물들의 공동체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의 생산물의 공유 관계도 있는 거죠. 그니까 인간과 토지, 혹은 농기구 이런 것도 공동소유를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는 산에 어린애들이 가기 두려워하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죽으면 그 상여를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공동묘지에 묻히고, 그 상여는 또 한 다음에 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전체가 상여를 죽을 때까지 만드는데 아니라, 만들어져있는걸 공유를 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공통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도달시켜서 원자화시킨 것이죠.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는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화폐들의 공동체. 화폐관계, 화폐 공동체가 가장 지배적인 공동체로 나타나고 화폐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고, 화폐가 모든 것들을 통역하는 보편통역기로서 기능을 하는거. 뭐 돈주면 어디나 다 통하잖아요. 국경을 넘어서도 전부 통하고, 뭐 화폐라고 하는게 일종의 공통어로서 기능하는 그러한 시대로의

이행이 근대화 과정이었습니다.

### ▲화폐와 민족국가

이 속에서 민족국가가 수행했던 역할을 보면, 민족국가라고 하는게 우리가 이제 요 이미지(상부구조-경제적토대)를 하나 머릿속에 놓고서 보면 말이죠. 요렇게 일종의 interstate 된, 국가간체제로서 인제 지구평면이 구축돼있다고 했을 때... 지금 national이라고 하는 건 local의 한 단계 극복으로서 나타나는데... local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져있는 것이겠죠. 이 local을 극복하는 과정, local을 national로 묶어내는 과정에서, 이 철도라고 하는게 수행했던 역할. 이거는 뭐 아주 막강하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국민국가가 제대로 형성돼있지 않은 한반도를 침탈해가지고 맨 처음 한 작업이 철도를 깔아 놓거예요. 그러니까 local과 local을 잇는 일종의 횡단언어를 만들어낸 셈이죠. local을 쪽 연결 짓는 거. 이런 물리적 차원에서의 local들의 공통관계를 확보하는 것 외에 당연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 했지만 화폐, 화폐경제의 발전. 이거는 local들이, 지역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잖아요. 화폐가 없다면은 그냥 지역은 지역으로서 자기정체성을 유지한 채 남았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화폐를 통해서 다 매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화폐의 역할이나 이런 거를 성령이라거나 무슨 불령이라거나 그런 경전들이 많이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도나 중국이라는 지역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이게 경이 같을 때에는 서로 통하는 거죠, 어쨌건. 요런 화폐경제의 발전. 그리고 민족어의 구축. 실질적인 소통언어죠. 민족어의 구축. 이런 걸 통해서 행정체계가 피라미드 방식으로 형성되어서 여기에서 근대적 의미에서의 주권이 발생하는 거죠. 신전과는 다른, 그러한 집권형태가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인제 생산이라는 문제를 한번 보면, 철도는 생산에 간접적 조건이 있는데... 이 생산의 내부적인 구조를 보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 - 우리는 농업은 지역적인 것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니까 농업이 매개되는 건 자연과의 관계이니깐... 하늘, 땅, 비바람의 문제이고 햇빛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옆 동네의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자연과의 관계, 천(天)과의 관계가 더 local에는 밀접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생산물들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쌀이라거나 하여튼 등등 - 물적 형태를 갖는 생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화폐가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란 거의 동의어지만) 이 생산물들의 유통경로라고 하는 건 이 지역에 국한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시작의 범위라고 하는 건 여기서 먹고 남는 것들, 즉 잉여분만을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내다놓는 것이... 그런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철도가 우선 전국성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의 초기 단계는 일단 자연을 인간에게 적합한 것으로 가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니까 농업이 자연적인 그 자체에 기초하고 있다면, 산업의 첫 국면은 가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자연이 가공되었다는 것 - 그러면은 가공되는걸 보면 우선 원료 같은게 있을 수 있겠는데... 원료는, 예를 들어서 영국의 가장 초기적인 자본주의적 산업형태가 뭐였죠? 방적기죠. 양모를 갖다가 우선 가져와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자란 양의 털, 이것을 깎아가지고 방적공장하고 보내는 작업이 되는데, 이 자연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재들을 의자로 만든다거나, 교회의 무슨 탁자를 만든다거나 등등 다양한 것들은 나무를 가공하는 것인데, 그것도 숲에서 나오잖아요. 역시 토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공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끼어들어가게 우리가 보통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으로서의 기계류이죠. 기계류가 끼어들어가서 자연을 인간에게 접합한 형태로 가공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기계류의 그 생산과정, 이 자체는 기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 지성의 물화된, 물적으로 조직된 인간 지성 - 인간 지성의 물화된 형태이고, 물적으로 조직된 인간 지성이기 때문에 순수자연적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기계류 자체는 인간적인

생산물, 인간적 능력 그니까 natural한 게 아니라 artificial한 것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계류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지역성에 얽매이기보다, local에 얽매이기보다 어떤 그 이상의 사회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 지성 그 자체가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 간의 상호관계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그 평면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류만큼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에는 두 가지 요소 - 자연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인제 전국적 규모에서, 일국의 규모에서 결합되어짐으로서 이 지역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형태를 혹은 인간들간의 사회적 관계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민족국가라는 것 자체가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형태의 산업, 농업과는 다른 산업이라고 하는걸. industry인데 요. industry라고 하는 건 industrial이라고 하면은 아주 부지런하다, 그 말이죠. 즉 부지런하다라는 건 자연이 부지런하다는게 아니고 인간의 땀이 개입한다는 것이죠. 근면한, 근면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개입해 들어가는, 인간적 요소가 개입돼 들어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산업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국성의 구축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니까 농업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과 자연성을 넘어서는 그 사회형태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농업이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업으로 넘어오면서 공업에 기반한 하나의 공간이자 인간들 간의 사회적 관계로서의 국민국가가 비로서 가능해졌다.

#### ▲중세 이후 생산의 세 가지의 계기(繼起)적 패러다임과 근대화

지금 우리는 그 세 번째, 나.에 세 번째요. 그니까 3) 서비스와 정보 조작 패러다임: 산업혁명 3국면 - 이걸 나중에 살펴볼 터인데. 지금은 1)에서 2)로의 이행을 근대화라고 볼 수 있겠고, 2)에서 3)으로의 이행을 탈근대화라고 부를 수 있겠죠. 지금 인제 이렇게 해서 구축된 주권으로서의 국민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그 자체의 커다란 변형이 나타나는 시기 - 이것을 우리는 서구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968년을 전후한 시기로 봅니다. 그니까 요 이전의 전사는 지난번까지 잠깐 본걸 보면은... 1848년에서 1870년, 그 다음에 1917년 1968년으로 봐서 ...

1848~1870 - 이 시기가 소위 산업혁명의 제1국면 시기, 첫 번째 국면인데... 이때 인제 증기라거나 초기적 형태의 기계류들이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1870~1917 - 1차 산업혁명의 제2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국주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17~1968 2차 산업혁명이 있게 되죠.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전기라고 하는 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요. 그 이전에 사용한 증기와 석탄이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라고 한다면... 전기가 도입되면서 제2차 산업혁명기를 겪어나가게 되고... 이제 1968년 이후에는 전자가 (물론 그 이전에도 전자제가 이미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걸로 사용되게 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유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 -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생산에너지이자 영역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1968년 이후 시기를 지금부터 살펴보고요 합니다.

## ◆2교시: 탈근대성의 징후들

### ▲1968년 전후의 역사적 상황

우선 1968년을 전후한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음... 1968년 전에는 좀 도식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난번에 대중노동자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인제 대응하는 자본형태가 사회자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중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콘베이어벨트, 즉 테일러주의의 도입과 포드주의적 분배양식, 케인즈주의적 종합양식, 정치적 종합양식이 결합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로 테일러주의적 시스템 하에서 숙련이 파괴된, 숙련이 기계 쪽으로 이전되어가지고 단순조립공 형태로 변화된 노동자들을 대중노동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대응하는게 사회자본이었습니다.

사회자본은 그 이전에 자유주의적인 자본형태와는 달리 우선 집적되고 집중된 자본형태로 나타납니다.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자본이 국가자본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련에서도 국가자본이 거대한 비중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경우에도 점점 국유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특히 케인즈주의적 정책의 도입은 국유부분에 아주 급작스러운 증대를 가져와가지고 사회자본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자본의 성격은 계획이었죠.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는 자본. 그니까 자유주의적 자본은 경쟁하는 자본이지만, 사회적자본은 동유럽이나 서유럽, 혹은 다른 지역을 불문하고 이전에 사회주의자가 주장했던 계획의 요소를 다 도입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계획하는 사회자본이 대중노동자와 일종의 타협관계를 맺었어요. 일종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타협의 계기로 작동했어요.

근데 이 대중노동자의 경우에는 조직된 경우가 있고 미조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숙련, 반숙련, 미숙련이 있는 것처럼 조직률이 100%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그니까 조직된 노동자들은 이게 주로 국가를 매개로한 자본가의 협정을 맺게 되는데 조직이 노이고 사회자본이 사, 국가가 정이죠. 노사정 트라이앵글 속에서 사회의 운영원리를 생산해내는 그런 매커니즘을 가동시켰었는데... 조직된 노동자들은 여기 참여할 수가 있지만,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던거죠. 그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대보험과 같은 것을 전혀 보장받을 수가 없었던 셈이고, 비록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개념에 입각해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게 금 한다 하더라도 생활상의 불안정, 이거는 떨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로 미조직 부분이 비보장 부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는 보장노동자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비조직 노동자의 선이 아주 뚜렷하게 그어져 있었고...

프랑스 같은 사례를 들면 68혁명 직전에 공식 실업률이 12%에 육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이 실업 당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항상 공식적인 집계는 낮으니까요. 그래서 68혁명의 기폭제로 된 부분은 바로 미조직의 비보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조직 되었으나 취업은 된 경우 외에 아예 실업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었죠. 그게 인제 여성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부분이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도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았죠. 취업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부분(비보장노동자, 실업자, 여성, 학생)의 인구 전체에서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이어도 좋을 정도예요. 그니까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68년혁명에서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죠.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부분의 영향력이 보장노동자의 영역에 당연히 미치게 되었던건데... 지금 요 노사정 트라이앵글, 삼각형 삼위일체의 권력은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면은... 바로 요 부분(비보장노동자, 실업자, 여성, 학생)을 통제하는 조직노동자들의 힘에 달려있었던 거죠. 조직노동자들이 요 부분을 통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을 사회에 순종하는 다수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제대로 안정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68혁명은 바로 보장노동자가

국가와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지렛대죠. 보장노동자를 지렛대로서 나머지를 통제하는건데... 이 지렛대가 무력함을 나타내는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떠한 주도적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밑에서 자발적으로 파업과 시위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에... 자본과 국가라고 하는 사회의 지배계급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렛대가 사용가치가 떨어져 버린거예요. 사용가치가 떨어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소위 노조하고 공산당(사회당) - 이 두 조직에는 국가보조금이 엄청나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국가보조금을 철회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사회적 영향력이 아주 급속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과 국가가 공장을 경영하려고 해도... 지금 밑에 부분을 잘 통제해야 자기네들의 잉여가치가, 이윤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터인데... 여기서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 그런 걸 말하는게 아니라 수업노동에 대한 임금지불을 요구를 하고, 실업자도 정치적인 임금, 사회적 임금을 지불하라고 하고..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던 부분들... 지렛대 부분을 매개로 해서 통제됐던 부분이 다양한 불만사항과 요구사항들을 제안하면서 고비용의 체제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는게 없는 그런 장사가 되었습니다.

#### ▲자본의 대응

이럴 때 이제 자본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뭐였겠느냐하는 거죠. 여기에서 전형적인 자본도피가 나타나죠. 투자기피, 자본가 파업 -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공장 문을 닫고 자기의 자본을 화폐자본으로 바꾸는 그런 산업자본가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산업에서부터 다른 것으로의 이행을 가져오고 있는 자본주의적 조건을 따져보고 있는 중인데요. 자본도피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IMF와 같은 자본의 기금형태, 기금의 형태로 축적이 되어가지고 국경을 넘는 이동을 시작하는 거죠. 이 이동이야말로 아까 말한 inter state의 해체를 가져오는 거죠. 민족국가라고 하는 통제양식들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아요. 이게 막 이동하는 것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식의 아주 분산적인 여행을 자본이 시작하게 되었고, 아프리카라거나 라틴아메리카라거나 아시아 지역으로 주로 많이 진출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의 계급들 간의 투쟁의 효과가 자본으로 하여금 이러한(IMF같은) 거대한 자본풀 - 그래서 초국적 규모의 자본풀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초국적 자본이 전 세계로 이동하면서 국경이라고 하는 걸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이제 무언가 다른 어떤 주권형태에 대한 요구를 하게된다는 거, 이게 하나의 역사적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 ▲탈근대성의 징후들 - 노동거부

거기 이제 탈근대성의 징후들에 제가 써놨는데요. 노동거부 - 이게 우선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요 문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거 같은데 지금 노동거부 문제는, 노동거부가 이 당시에 노동자들의 투쟁슬로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계기를 보면, 바로 이 노사정 삼위일체 시스템 자체에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케인즈주의 자체에 숨어있다고 해도 좋겠죠.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거는 노동 하느냐, 앓느냐를 임금을 지불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으로 삼지를 앓는 것이거든요? 그걸 포기하는 통치형태입니다. 이전에는 노동시간이 가치의 척도였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금이 없는 것이었죠. 근데 케인즈주의는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유효수요, 즉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만들어야만 과잉생산 - 즉, 창고에 상품이 쌓여있고 수요자가 없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어쨌건 노동자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소득이 있다는 것하고 내가 뭔가 돈을 번다, 나에게 수입이 들어온다, 이것하고 내가 노동하느냐, 마느냐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케인즈주의 시스템 자체가 고백을 한 셈이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도 소득이

있고, 일을 안 해도 소득이 있다면 왜 구지 강제노동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노동과 소득관계에 대한 케인즈주의적인 재개념화, 재관념화가 노동거부를 사회전체에서 사회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수십 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력 판매를 거부하고 노동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나.에서 말한 것처럼 노동 시간이 더 이상 가치적으로 작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면서, 다.에서 보면 적대양상도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권의 외부가 제국의 외부가 사라지는 것하고 자본의 외부가 사라지는 거하고는 거의 병행하게 되는, 병행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서 노동자가 파괴행위로서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건설적인 거, 구성적인 것으로서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노동거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거부라는 게 일을 안 하고 논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분명히 그건 여가라거나 게으름이라거나 어떤 소비라거나 소비라고 하는 건 파괴를 의미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많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거나, 구성한다라거나, 건설한다라는... 노동하지 않는 그 시간, 노동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역점이 가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의 투쟁의 모드가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게 민족국가적 조건을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정후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산의 변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 ▲생산의 변형 - 조립라인 생산에서 네트워크 생산으로

맨 첨으로 얘기드릴 수 있는게 조립라인 생산에서 네트워크 생산으로의 이행입니다. 조립라인은 뭐죠? 컨베이어벨트죠. 쪽 연결되는건데... 우선 컨베이어벨트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factory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죠. 근데 이러한 배라거나 우리가 노동하는 공장하고 공간을 전제하고 이것들의 분산성을 극복하는 즉 공장의 유기화, 유기체화, 이게 인제 콘베이어벨트인데요. 이 콘베이어벨트화된 공장들의 사회적 조직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족국가라고 볼 수 있죠. 국가가 공장들을 쪽 연결 짓는 그런 정치적 매개체역할을 하고, 그 판의 역할을 하는게 시장이죠. 공장들은 공장들의 연결망이 하나의 시장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인력의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생산물들의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공장에서 나온 생산물들도 유통되어 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노동, 생산수단의 시장,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금의 기업체들을 염두 해둬 보면 하나의 생산물이 개별소비자들의 수준으로 소비되는 것보다는 기업 대 기업 간에 비투비거래가 더 많잖아요. 사실상 규모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지금 이게 네트워크 생산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국가를 넘는, 두 단계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개별 공장이 사회 공장의 형태로 된다는 것. 한 국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장 시스템으로 가동이 되는 거죠. 사회의 공장화 - 한 사회의 단일 공장화. 이게 레닌의 이념입니다. 레닌은 어떻게 하나의 사회를 공장모델에 따라서 조직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이 일종의 공장의 감독관이라거나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인민이 공장의 노동자로서 기능하는 그런 모델. 그래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공장이 움직여 가듯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공장화된 사회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먹을 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사회의 공장화)가 일종의 사회주의의 이념이었는데, 이 이념이 민족국가 주권의 완성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 전체가 국가 간 경계 속에서 하나의 공장으로 편제되는 그런



국면. 꼭 단계 단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추상화해보면 마치 단계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국면을 거치되 68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의 공장화라고 볼 수 있는게 나타나는 거죠. global factory가 나타나는 거죠. 이 촌(village) 개념을 통해서 지구의 이미지를 굉장히 공동체적인걸로 만들어놨지만, 어쨌건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세계상이 등장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것이 village가 갖는 그런 평화스러운, 전원적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내적으로는 흡혈하고 뜯어먹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묶음으로서의 공간, 지구적 공간이 출현하게 되는게 저 시기 이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에 지금 이것들이 인제 하나의 콘베이어벨트로 연결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정보고속도로같은 경우에는 정보적 생산에서 일종의 공간에 공장개념을 도입하기는 합니다. 해저케이블을 짚 깔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구가 하나의 단일한 소통망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인제 구상을 하는데, 어쨌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콘베이어벨트상을 한참 벗어나야 그런 상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럴 때에 나타나고 있는게 바로 네트워크적 생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단위들이 하나로 단절된게 아니라 부분 부분의 독자성을 가지면서, 이걸 이제 입체화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연결되는 그런 식의 네트워크 생산, 네트워크 기업형태가 나타난다. 지금 중국에서도 네트워크 기업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하던데, 중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말이죠. 어쨌건 네트워크 생산이 조립라인 생산을 대체한다.

#### ▲생산의 변형 - 정보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웠지만 정보화, 정보화는 digital기술의 이용을 통해서 급진전됐죠. 그래서 digital 기술을 통해서 소위 생산물, 생산영역, 생산과정, 이런 것들의 간극들을 극복해버리는 - 그래서 이게 컴퓨터에 연결,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컴퓨터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생산물, 생산영역, 생산과정) 소리이든 이미지이든 아니면 텍스트이든 간에 이 컴퓨터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의 키보드로 다 명령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의 추상화, 동일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맑스는 추상 노동을 개별 노동자들의 시간들의 사회적 함으로서 파악을 했었는데, 그와는 다른 유형의 양적 추상화가 아니라 물질적 추상화있죠? 소리나 이미지, 텍스트들이 추상되어서 하나의 언어행위(language)로 바뀐다는 것이죠. 동일한 언어행위로서 모든 생산과정이 통일되어버리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동일화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다.에 적어놓은 것처럼 지식 집약적인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이전에 산업혁명의 1, 2국면이라거나 2차 산업혁명이라거나 이럴 때에는 노동집약적이었던 것이 (물론 여기에서도 구분하자면 순수하게 노동집약적인 때와 기술집약적인 때가 있죠.) 근데 지식집약적인 걸로 바뀌어 나간다. 그러면서 드디어 얘기할 수 있는게 노동의 비물질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